

“쉽없이 정진해 부처가 됩시다”

광주사암련, 성도절기념 도문 스님 초청법회 광산구불교협 창립 축하... 포교대상 시상도

☎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항)는 1월 4일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문 스님 초청 성도절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광산구 불교협의회 창립축하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은, 조계종 前 포교원장 압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동구불교협의회장 지각, 남구불교협의회장 상은 스님 등 사암 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송병태 광산구청장 등 지역기관장, 이상진 광주 전남신도회장, 백남을 광주전남 포교사단장 등 신행단체장, 재가불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초청법사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쉬지않고 정진하여

부처가 되어야 한다"며 "참선, 열불, 간경, 주력, 불사수행으로 업장소멸과 해안을 구족하는 불교 5대수행"을 강조했다.

이날 창립된 광산구불교협의회 초대회장 성오 스님(마하보리사 회주)은 인사말에서 "광주에서도 불교 불모지로 불리는 광산구 불교발전을 위해 사부대중이 모였다"며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승·속이 하나되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송병태 광산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인류의 스승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은 인류 모두의 축제일이다"며 성도절과 광산구불교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이날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전통불교연산회(회장 혜행)와 자비신행회(이사장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성도재를 맞아 1월4일 개최한 도문 스님 초청 특별법회에 1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법문을 듣고 있다.

현장)가 단제상을 수상했다. 또한 도신(광주교도소 교회위원), 무심 스님(성연사 주지)과 민상홍(한마음선원 합장단)가 공로패, 이호준(시정불자회장), 이개호(전남도 청불자회장), 진화 스님(증심사 주지)이 감사패를 받았다.

성도절 법회에 이어 광주불교 승보회(회장 광민)도 초대여고 임정아 양 외 8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기금을 전달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생활 속 불교문화

‘진묵대사와 고시래’

야외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씩 떼어내 던지는 것이 '고시래'다. 백과사전의 풀이에 따르면 "고수래·고시래·고씨래 등으로도 불리며 지신(地神)이나 수신(水神)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무사히 행사를 치르게 해달라는 기원과 잡귀 추방의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 만경평에는 진묵대사(震默一玉, 1562~1633)가 '고시래'의 원조로 알려져 오고 있다.

효심 깊은 진묵대사는 어머니 조의(譚意)부인이 돌아가자 김제 만경 화포리 불거촌(佛居村)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곳은 진묵대사 탄생지로 천년간 향이 끊이지 않는다(無子孫 千年香火之

식을 나누면 집안이 잘되고 농사가 잘되지. 고시래는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이도 좋다고 허거둔"이라며, 마치 진묵대사 모친을 부르는 듯 모습을 취한다.

불거촌은 약 3만~4만평 규모의 야트막한 구릉이다. 진묵대사 모친 묘주위에는 성모암(주지 종우)과 조양사(주지 송현)가 자리해 있다. 몇 해전만 해도 진묵사라는 절까지 무려 3곳의 사찰이 함께한 진묵성지이다.

특히 성모암은 지난 2002년 진묵대사 모친 묘 옆에 '고시래전'을 건립해 고시래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 전각 안에는 진묵대사와 모친 조의부인 영정이 모셔져 있다. 조양사 진묵전에도 진묵대사와 모친 조의씨, 누이의 영정

효심깊은 진묵대사, 공양 받을 때마다 어머니 위해 음식 조금 떼 들판에 던져



전북 김제시 조양사 조사전에 봉안된 진묵대사 영정(가운데)과 누이(왼쪽)와 모친(오른쪽) 모습.

地는 명당터이다. 지금도 이곳 진묵대사 모친 묘에는 해마다 수십만명의 참배객이 줄을 이어 향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서 내려오는 구전에 따르면, 만경평을 지나던 진묵대사는 들판에 서 일하는 농부들로부터 공양 받을 때마다 음식을 조금 떼어내 어머니를 위해 들판에 던졌다고 한다. 이때부터 농부들도 진묵대사 어머니를 부르며 음식을 나눴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 의씨에게 예'를 올린다는 말이 '고시래' '고시래' 등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불거촌 초입에서 만난 송병철(75·오호도 동궁산 IC, 만경 IC에서 '대아김문 올리부락')씨는 "일하다가 술이나 밥을 먹을 때 '히~히, 고시래' 하고 음

이 모셔져 있다.

불거촌에서 나온 자란 조양사 주지 송현 스님은 "진묵대사가 고시래를 한 연유는 유주무주 고향을 위한 헌식 의미였지만 후대에 오면서 부처님 화신으로 불리는 진묵대사의 영험력에 의지해 소원을 비는 의미가 담겨있는 듯하다"며 "고시래가 기록이 아닌 작복(作福)의 실천행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성모암: (063)544-0416 조양사: (063)542-5585 ▲교통관: 자동차로 서해안 고속도로 동궁산 IC, 만경 IC에서 '대아김문 올리부락'씨는 "일하다가 술이나 밥을 먹을 때 '히~히, 고시래' 하고 음

인터뷰 광주 광산구 불교협 초대회장 성오 스님



“종파 초월해 포교·나눔 앞장”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이란 큰 과제를 성취한 뜻 깊은 날, 불자들이 하나되어 정진과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게 되어 기쁩니다”

부처님 성도재를 맞아 1월 4일 창립법회를 개최한 광주 광산구불교협의회 초대회장 성오 스님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풀게 됐다”며 “종파와 승속을 초월해 화합으로 불법 흥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광주의 5개구 가운데 광산구는 가

장 교세가 열악해 불교 불모지로 불리고 있다”며 “28개 회원사찰과 불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빠른 시일내에 호남불교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또 “지역 사암과 연대해 체계적인 불교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이웃사랑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성오 스님은 백양사 강원을 졸업하고 심향사 주지 및 조계종 중앙종회 11대, 12대 종회의원 역임했다.

재소자 독경·찬불가 경연 선각중, 장흥 교도소 위문



대한불교 선각중(총무원장 정암)은 지난 12월 29일 장흥교도소 대강당에서 '제5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불자 재소자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정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자리해 있는 이 자리가 그대로 법당이며 수행도량이다"며 "부지런히 정진해 참 나

를 찾자"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영산자법 전수자 도담 스님과 문하생, 미륵사 합창단이 전통 작법악, 찬불가 등의 불교 의식을 선보였다.

경연대회에서는 본선에 오른 10팀의 불자 재소자들이 출연해 독경과 찬불가 등 경연을 펼쳤다.

한편 이날 장흥 선산사(주지 진법) 신도회는 재소자들에게 내복과 떡,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태고종 충북교구중무원 전승관 건립 힘모으기로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중무원(원장 월담)은 1월5일 충북교구중무원사인 청주 반야정사에서 중무원장과 각 지역 분원장을 비롯한 대덕 원로 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사무식(사진)을 갖고



전승관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사무식에서는 또 혜광 스님(단양 금수사 주지)과 도관 스님(제천 도선정사 주지)이 단양과 제천 분원장에 임명됐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통일법회로 새해 활짝열어 광주 동구불교협, 신년하례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는 지난 1월 4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신년하례 및



통일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동구지역 사암 스님과 재가불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동구불교협의회는 연등축제,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등을 주최하며 지역불교를 이끌어 왔다"며 "새해에도 광주 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 역대조사와 스님, 재가불자들이 신년인사를 나누는 통일법회를 갖고 새해를 맞이했다.

이준엽 기자

양주 대원정사(大願精寺) 3년 천일 지장기도 동참 안내

제방의 도량을 탐방하며 수행정진 하던 중 지장도량 건립 불사의 뜻을 세워 1986년 양주 일영리에 대원사(大願寺)라 명명하여 자그마한 지장도량을 창건하였으나, 관광유원지화 되면서 수행도량의 유지가 어려워 1989년 현재의 이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천막과 비닐하우스 등 임시건물에서 8년 동안 밤낮없이 불사성취 원력기도 수행과 땅의 결실로 현재의 도량을 건립하였습니다. 중생의 악하고 나태한 심신과 모든 흠어진 것들의 근원을 한곳에 모으는 의미에서 대원정사(大願精寺)라 사람명을 개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장대불 입상(35자) 좌우보처 도명존자 무독귀왕, 삼살개 조성봉안을 시작으로 육지장 입상, 명부전(영가 장기 보존), 대웅전, 천당과 지옥 등 불교 관광지지를 조성하여 고통 받는 중생들의 안식처와 의지처로 바꾸고 성취해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소납의 기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3년 천일 지장기도를 발원하오니 뜻깊고 인연있는 불자님들은 수회 동참 바랍니다.

대원정사 주지 해련 합장

3년 천일 지장기도 기도시간

- 지장대불 철이정진기도
 - 시간 : 매주 토요일 밤 11시 ~ 새벽 4시
 - 장소 : 지장대불 앞
- 신중기도 : 매일 음력 1일 ~ 3일
- 산신불공기도 : 매일 음력 3일 오후 7시
- 약수터 용왕 불공기도 : 매일 음력 8일 오후 7시
- 매일 : 새벽 3 ~ 6시 / 오전 11시 ~ 1시 / 오후 5시 ~ 7시

천일기도 동참안내

- 스님 백회 공양 참회기도
 - 법당에 가족등(황금색)을 올리고 3년 천일기도 회향때 스님 100분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큰 행사입니다.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을 현판에 각인하여 그 큰 공덕을 오래 전할것입니다.
 - 매일 / 매월 / 3년
 - 법당 황금색등 (가족단위) 1달 / 3년
 - 외부 기도 등 (1인 한등 / 2인 한등)
 - 100일간 / 49일간 / 21일간



2005년 8월 31일 (벽제 동아석전에서 조성) 지장보살님, 무독귀왕, 도명존자를 모시는 도중에 맑은 날씨임에도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20분간 내려 도명존자의 두 눈에 눈을 자극형상을 남기고 하늘은 다시 청명해 졌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벽제 동아석전에서 조성) 오후 3시 10분 지장보살님께서 육환정을 손에 쥐시자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무지개가 지장보살님의 머리위에 1시간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 대원정사에서는 남굴당과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농협 201058-52-053979 (박경자)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앵무봉 대원정사 주지 석여련 합장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고령산 앵무봉 (장흥유원지 내) 전화 031)855-5501-3